

타이거살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론가들의 비평과 감상을 전합니다.

우리 시대 또 다른 난쏘공, 꼬방동네 사람들



자전만화는 허구의 주인공이 아닌 작가 자신이 화자가 되어 개인의 경험을 그린다. 자전만화는 1960년대 대안, 대항 만화에서 등장했다. 일본은 1964년도에 창간한 월간만화잡지 <가로(K)>에, 미국은 1968년도에 창간한 언더그라운드 출판물 <젯(Zap Comix)>에 개인의 경험을 회고하는 방식의 만화가 발표되었다. 1972년 저스틴 그린(Justin Green)의 만화 <빙키 브라운 성모 마리아를 만나다(Binky Brown Meets the Holy Virgin Mary)>는 어린 시절 보수적 가정에서 겪어야 했던 다양한 억압을 고백했고, 이후 서구 자전만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트 스피겔만(Art Spiegelman)의 <쥐(Maus)>(1980-1991)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아버지의 전기를 자전만화로 그렸고, 마르잔 사트라피(Marjane Satrapi)는 <페르세폴리스(Persepolis)>(2000, 2004)에서 어린 시절 경험한 이란혁명과 이후 유럽으로 이주한 경험을 회고했다. 캐나다의 만화가 체스터 브라운(Chester Brown)은 자위, 성매매 같은 사적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자전만화는 북미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대안을 넘어 주류 출판물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작가들도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벼운 일상의 스케치, 실패한 연애, 과거의 회고 등이 새로운 만화로 독자를 찾았다. 이종철 작가는 전작 <까대기>에서 지옥의 알바로 불리는 택배 배송물 분류 노동(속칭 ‘까대기’)을 개인의 경험을 넣어 노동의 문제로 확장했다. <제철동 사람들>은 작가의 두 번째 자전만화다. 한 사람의 삶은 그가 만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완성된다. 주인공 ‘강이’가 일곱 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가족은 포스코 바로 옆 제철동에 상주식당을 개업한다. 강이는

식당 아들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성장한다. 제철소 노동자, 하청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가내 봉제 노동자, 자영업자, 동네 노는 형, 다방 누나, 조선족 이모들, 그리고 무엇보다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 작가는 자신을 대신한 주인공 ‘강이’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서사를 주변부로 확장하고, 다시 주변부의 서사를 서로를 향해 모아낸다. 자전만화라고 부르지만, 한 개인의 서사가 아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 이야기는 만화가 된다.” <제철동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인공 강이의 외할머니와 강이의 어머니 이야기는 다섯 쪽으로 끝난다. 이야기를 확장하고 연결하면 개인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드러낼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순이가 은행에 취직해 경북 상주에서 온 창규와 사랑에 빠진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다가 내가 생기게 된다.”(p.12) 둘은 결혼하고, 강이가 태어나고 2년 후 별이가 태어나네 식구가 된다. 창규가 은행을 그만두고 컴퓨터 학원 사업에 뛰어들었다 망한 뒤 가족은 조그만 방이 딸린 제철동 가게에서 식당을 연다.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연도를 표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만화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차분하게 만나게 된다. 연표로 정리하지 않은 작가의 기억은 제철동이 아니라 어느 공간 지역도 마찬가지로 ‘첫가루 날리고 땀 냄새 나는 우리 이야기’가 된다. 만화에 담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실수도, 자책도, 희망도, 선행도, 악행도 모두 그 사람의 존재를 담는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작가의 성실함이 빛난다. 저 멀리 조세희의 소설 <난 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 배창호 감독의 데뷔작 <꼬방동네 사람들>(1982)과 비교해 읽어도 좋을 작품이다.

박인하 만화평론가

고대인의 시선(詩選)

시(詩)에 대한 감상을 담아냅니다.

와사등(瓦斯燈)

-김광균

차단한등불이하나비인하늘에 걸리어있다.
내 호ؤ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피부의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냐.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진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 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夜景) 무성한 잡초인 양 형결여
진채
사념(思念) 방rière 되어 입을 다물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왔기에
갈-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등불이하나비인하늘에 걸리어있다.

나는 대치동에서 태어나서 자란 ‘대치 키즈’였다. 고등학교3학년이 되어서야 수능 국어 공부를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대치동 모 학원 원장의 공포 조성 마케팅에 단단히 넘어간 어머니는 혹여나 딸이 뒤처질까 나를 1학년 때부터 수능 국어 학원에 보냈다. 굉장히 졸렸던 그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재 뒤 페이지를 넘겨 가며 열심히 시를 읽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다 접한 김광균의 시 ‘와사등’이 열 일곱의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이유는 쓸쓸한 도시의 황혼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길게 늘어지는 여름해에 주황빛으로 물든 고층 빌딩들. 웅성대며 어딘가로 걸음을 보내는 사람들. 황망히 사거리에 멈춰선 나. 선생님은 이 시를 설명하는 데 3분 이상을 쓰지 않았다. 성격: 감각적, 회화적, 주지적. 내가 이 시에서 받은 묘하고 복잡한 인상은 위의 몇 가지 단어들로 축약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곧장 페이지를 넘겨 다음 시를 몇 가지 단어들로 단정했다. 수능 국어 공부란 그런 거였다. <보기>에 쓰인 관점대로 시를 해석하는 것. 내가 ‘와사등’에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다 못

해 흘러넘친다고 느껴더라도 <보기>에 이시는 감정을 절제한 모더니즘 시라고 적혀 있으면 오답은 ‘화자의 감정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수천 개의 현대시 문제를 풀면서 어느새 나는 감상을 배제한 채 빠른 속도로 선지에 정오 체크를 해나가는 기계가 되어 있었다. 수험 생활이 끝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는 시를 감상하는 방법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지 못한 채였다. 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것에 익숙해져 시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법을 잊었다.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유일한 목표가 사라지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했다. 인생에도 시에도 정답이 있다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한다. 수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앞에는 더 크고 혼란스러운 세계가 놓여 있었다. 다시금 와사등을 읽는다. 모더니즘 같은 것들은 전부 잊어버린다. 1930년대에 청년이었던 시인이 어디로 갔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에 내가 겹쳐 보인다. 비로소 나는 이 시를 이해한 듯싶다.

이수진(정경대 경제20)

아랑줄띠 - ㉫ 제기 ‘헤이피’

‘아랑줄띠’는 알아두면 좋을 곳이란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안암에서 찾는 달콤한 위로



오늘도 1교시를 듣기 위해 터덜터덜 쫓린 몸을 지하철에 싣는다. 이른 아침부터 연속으로 강의를 들으니 웬지 오늘따라 더 힘들고 달콤한 게 당기는 것만 같다. 마침 3시간 공강도 있겠다. 수고한 나에게 달콤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음먹는다. 그리고 내 발걸음은 그 즉시 카페 ‘헤이피’로 향한다. 고대사거리에서 빅마트와 멀치국수 사이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 케이크 맛집 ‘헤이피’가 있다. 골목 안에 있기에 초행길이라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

치가 오히려 더 비밀스럽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만 같다. 조금만 걷다 보면 흔히 말하는 정겨운 안암골 분위기가 아닌 이질적인 외관을 띤, 연남동인가 착각이 들게 하는 셋노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노란색 건물의 계단을 오르면 먼저 아기가 자고 귀여운 장식품들이 나뉘는 빈칸다. 케이크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특히 매일 달라지는 케이크 종류는 고르는 재미를 더한다. 고민 끝에 무화과 밀크티 케이크, 그릭 블루베리 케이크와 커피를 주문한다. 담백하면서도 과하

게 달지 않은 크림, 자꾸만 손이 케이크로 향한다. 달콤한 케이크와 그에 잘 어울리는 씹쓸한 커피 한 잔,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가 단숨에 날아가는 것만 같다. 순간 이런 행복이라면 매일 1교시 수업도 어쩌면 괜찮을 것 같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진다. 특별한 날은 물론 고된 하루 끝에 달콤한 위로가 필요한 날이라면 연남동 감성에 ‘안암스러움’이 한 스푼 섞인 헤이피를 방문하는 건 어떨까?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효진 기자 sincere@

KUDiary 9월 4주차 학사일정 안내

교내 학술·문화 행사 및 각종 공지를 안내합니다.
제보: press@kunews.ac.kr

<행사>			
일시/장소	행사명	내용	문의
9월 22일 17:00 ~ 19:30	Beyond 인문학 2편. 새로운 시대의 극장: 공연예술 편	특강 1. 어린이와 공놀이 - 어린이 연극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 강훈구(연출가) 특강 2. 드라마터그의 역할과 페미니즘 연극제 - 장지영(드라마터그)	문과대학 대학혁신사업 02-3290-2026
<모집>			
일시	모집명	내용	문의
9월 19일 ~ 10월 14일	보건의로 ESG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혁신적인, 구체적인, 명확한 ESG 아이디어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회공헌팀 tnjohnkim@korea.ac.kr
9월 13일 ~ 9월 22일	고려대 ESG 아카데미 2기 수강생 모집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ESG 흐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기본과정) 기업 사례를 통한 ESG이론과 ESG경영활동 연결, 비교, 진단 및 지표를 통한 평가(심화과정)	사회공헌지원부 한규비 직원 02-3290-5052
~ 9월 26일	제1회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대학원생 인권 논문상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생(재학생 혹은 등록 수료생)에 한하여 개인 및 공동연구 모두 참여 가능 *휴학생 참가 불가	인권성평등센터 02-3290-2845/2843
9월 14일 00:00 ~ 9월 21일 17:00 (선착순 60명)	2022학년도 2학기 자기이해워크숍 (인문사회계열)	클림톤 강점 진단 온라인 테스트(40-50분) 결과 워크숍 (9월 26일부터 10월 4일 10시 ~ 12시/2시 ~ 4시 총 10개 일정 중 택 1)	대학혁신본부 경력개발실 02-3290-5264
<학사공지>			
일시	모집명	문의	
9월 23일 20:00 ~ 9월 25일 12:00	고려대 협업도구 Office365 ID 변경 작업	디지털정보처 데이터Hub팀 02-3290-4187/4777/4183	

